

[백세인생]

# ‘나이는 수자’, 내 인생에 ‘은퇴’란 없다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리창수 회장의 열정 인생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리창수 회장

## 리창수 회장 프로필:

전임 길림시조선족중요예술관 관장, 전임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회장, 현임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회장, 전국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부회장.

“친목회 상임리사회와 회원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올년 초, 길림시에서 개최된 길림성 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회장단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로 선임하게 된 리창수 (87세) 회장이 발표한 소감이다.

“올 7월에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는 길림시에서 친목회 설립 15주년 경축 ‘익수당배’ 성악시합을 개최하게 됩니다. 요즘은 행사 사전 준비 작업으로 두루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1999년 길림시조선족중요예술관 관장직에서 물러난 후 26년째 조선족로년사업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그는 이 정도 행사 기획은 식은 죽 먹기

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빈틈없는 성격 탓에 세심한 준비를 거듭하고 있다.

제 2의 고향 길림, 60년의 발자취

“60년 넘게 길림에서 살았지만 마음속 고향은 언제나 연변입니다.”

1939년 연변 룡정의 두만강변 마을에서 태어난 리회장은 어린시절 가족의 리산을 겪으며 숙모 손에서 자랐다. 고종 졸업후 길림시강남사범학원에 진학, 졸업 당시 ‘당과 인민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으로 화전현 산골 학교에서 15년간 교편을 잡았다. 이후 길림시문화국 관계자의 눈에 들어 1977년 길림시조선족중요예술관에 전근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조선족 문화예술의 든든한 버팀목

길림시조선족중요예술관 문예부 주임으로 재직 기간 그는 한철근 등 조선족 음악인재를 발굴하는 데 공헌이 크다. 당시 한철근은 아라디조선족마을 문예대 대장으로 활동중이었으나 리창수의 간곡한 설득으로 조선족중요예술관에 합류해 후일 길림지역 유명 작곡가로 성장했다.

리창수 회장은 1990년대 길림시 영화회사당위 서기, 문화관 관장 등을 거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힘썼다.

## 26년 차 로인협회의 코끼리

1999년 퇴직 직후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등 떠밀려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말한다.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회장으로 활약하던 2011년부터는 협회 문예부의 동북 3성 순회공연을 주최하

며 로년층 문화교류의 장을 열었고 2019년부터는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를 이끌고 회원수가 급감하는 환경 속에서도 활기찬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1년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설립 당시만 해도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 (연변지역 제외) 회원수가 무려 7, 8만명이었는데 지금은 2만명 미만으로 줄어든 실태라고 리창수 회장은 소개했다.

올해 하반기 친목회 일정의 하나로 화전, 사평 등지 순방 계획을 확정하고 그는 “건강 문제없어요!”라며 새시대 건강한 87세 로인의 품모를 뽐낸다. 술자리에서도 반근 주량을 자랑한다는 그는 “나이라는 수자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라며 소탈하게 웃었다.

/ 차영국기자



2025년,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친목회 회장단회의 참가자들.

## 동북 3성 업계 선두기업—화전회금 력건박 총경리의 도전기

동북로공업기지 진흥의 물결 속에서 길림성에는 성공한 창업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화전시회금석회업 (汇金铝业) 유한회사 (이하 ‘화전회금’)의 력건박 (历建博) 총경리는 그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다. 금융업계 종사자에서 실물경제의 투사로 변신한 그는 불과 몇년 만에 평범한 석회석 가공 기업을 동북 3성의 업계 선두기업으로 키워냈다.

그의 창업 스토리는 개인의 분투이자 현지 당위와 정부가 민영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금융인에서 석회석 기업가로 변신

2018년, 31세의 력건박은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했다. 청도 모 신학회

사 경리직을 그만두고 화전회금을 인수한 것이다. 당시 화전회금은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했지만 전통적 제조 방식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 과다, 환경 압력, 단일제품 라인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었다.

초기에 그는 낮에는 공장에서 생산 데이터를 기록하고 밤에는 업계 보고서를 연구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전통 제조업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효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그는 2019년 20만톤 규모의 고품질 산화칼슘 회전 가마 프로젝트를 주도해 전국 최초의 청정 석회석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수산화칼슘을 심층가공 프로젝트를 추진해 년간 10만톤의 고품질 수산화칼슘 생산라인을 신설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등 일련의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의 효율적 운영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현재 회사는 전국 동종 업계 3위의 종합 실력을 갖췄다.

##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위기 극복

2020년 강철 업계의 주기적 불황으로 화전회금은 창업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제품 판매 부진과 자금난 속에서 화전시정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흥룡강성 관련 기업과 협상을 벌여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동시에 화전시검찰원은 법치호항 (法治护航) 행동을 가동해 계약서식 개선 및 증거보존 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이 경영 활동에서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 아래 력건박은 다각화 전환 발전 모델을 추진했다.

2024년 기업 생산액은 2억 6,700만 원으로 역성장했으며 납세액은 화전시 5위를 기록했다. 화전시공업정보화국 관계자는 “화전회금은 당위와 정부의 지원을 혁신 동력으로 전환한 청정정장 (亲清政商) 관계의 우수한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 지능 제조, 녹색 전환의 선두주자

화전회금은 석회석 기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먼지가 란무하는 대신 깔끔한 환경이 조성되어있고 특히 회전 가마는 지능형 중앙제어실에서 원격 조작된다.

2024년 화전시 신에너지 배증 계획의 지원 아래 회사는 1,900만원을 투자해 3.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건설, 연간 탄소 배출량 320만톤을 줄일 예정이다. 2025년에는 1,100만원을 투자해 7.6메가와트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게 된다.

“제조에서 스마트 제조로의 전환은 정책의 바람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력건박은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소가 완공되면 년간 700만원의 전기료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봄 그는 또 다른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업계 트렌드에 발맞춰 1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첨단 기술인 병류축열식 듀얼 석회석 2개를 도입하는 고도화 생산능력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1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며 년간 40만톤의 생산능력 증대와 2억원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력건박은 “앞으로도 국가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발전과 탄소절감에 힘쓰면서 화전시와 길림시의 경제사회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무송융합매체



력건박 (좌) 총경리

##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 중국공산당 창건 104주년 기념행사 개최



6월 27일,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회원 400여명은 길림시라지호텔 레비존방송활동센터에서 중국공산당 창건 104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경축 행사는 전체 회원들의 대합창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로 시작했다. 이어 당과 국가에 대한 사랑을 담은 흥색가요를 중심으로 합창, 독창, 무용, 북춤, 기악합주, 전자관악기 연주 등 도합 21개 종목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연변인민 모주석을 열애하네〉 무용은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경쾌한 리듬에 맞춰 우아한 춤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열

띤 박수를 받았다. 전자관악기합주팀의 연주 역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2성부로 구성된 대합창 〈장정〉은 홍군의 장엄한 기상을 표현해냈으며 마지막 무대는 가수들의 연창으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무대는 참석자들이 노래와 춤으로 당창건 104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에는 길림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동옥병 부주임, 문교처 서영고 처장, 길림시조선족중요예술관 리영일 부관장 등 인사들이 참석했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 ‘금노을동호회’

## 풍만수력발전소 참관, 문예행사도 펼쳐



6월 25일, 길림시 조선족 ‘금노을동호회’ 회원 50여명은 송화강 풍만수력발전소 아래에 위치한 학방촌 산장에서 중국공산당 창건 104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노래로 시작되었다. 로당원이자 회장인 유재군은 회원들을 상대로 홍군의 2만 5천리 장정, 항일전쟁, 해방전쟁 및 새 중국 건설 과정에서의 중국공산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당과 나라를 사랑하고 인민을 위한 초심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회원들은 동북에서 제일 큰 길림시 풍만수력발전소를 참관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1936년 일본침략자들은 5년 안에 풍만수력발전소를 완공하라고 위만주국정부에 두차례 ‘지시’를 내렸다. 1937년 4월, 위만주국정부는 송화강을 가로막고 발

전소 건설을 시작하여 1943년 3월 25일 첫 발전에 성공했다.

2014년 7월, 정부는 기존 댐 아래에 새로운 댐을 건설하기 시작해 2019년 4월 30일 준공 및 운영에 들어갔다. 신규 댐의 길이는 1,080미터, 높이 91미터, 하부 너비 60미터이며 발전 용량은 기존보다 1.5배 증가했다. 송화호 저수량은 108억립방메터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댐은 중앙부분만 폭파 처리되었으며 랑측 댐은 력사기념물로 보존되었다.”

참관후 회원들은 자체로 준비한 문예공연과 유희로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점심에는 송화호의 다양한 생선요리를 즐기며 노래와 춤으로 당창건 104주년을 경축하며 행사를 원만히 마무리했다.

/ 문창호특약기자



## 부여국력사문화연구센터 북화대학에 설립

일전, 길림시 북화대학에서 부여국력사문화연구센터 설립 대회 및 학술교류회가 열렸다.

부여국은 우리 나라 동북지역 최초의 소수민족 정권으로서 중화문명 발전사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부여국 력사문화 연구는 길림지역 문화의 특색을 발굴하고 지방 문화 건설 및 민족단결 사업에 리론적,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북화대학은 부여국 전기 왕성 (王城)이 위치한 길림시에 자리잡고 있어 지리적 리점을 가지고 있다.

길림성 최대 규모의 종합대학으로서 세계사, 동북 변경 민족 연구 분야에서 탄탄한 학술 령량을 보유한 북화대학은 이번 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부여국의 기원, 부여인의 분포,

왕성 위치 (전기·후기), 부여 문화와 주변 문화의 관계, 동북 고대 민족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연구를 심화할 계획이다.

연구센터는 협력 강화, 부여 문화유산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고고학 발굴 확대 등을 통해 부여 연구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부여국 연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술 교류를 진행했으며 길림시융합미디어센터에서 행사 보도를 했다.

※ 부여국 (夫余国): 기원전 2세기—서기 494년 존속한 동북아 고대국가로 중원 왕조와 동북아 교류의 핵심 역할을 했다.

/ 무송융합매체